

# “시청자가 찾아와서 보는 콘텐츠 만들어야”

MBC TV '놀면 뭐하니?' 제작 김태호 PD

### '무한도전' 정신 계승하며 새로운 화법 찾아가는 과정 유재석이 즐길 수 있는 새 캐릭터 만들어주고 싶어

“무한도전”을 14년 동안 책임PD로서 만들었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휴식하는) 1년간 관찰도 고민도 많이 했지만 벗어날 순 없더라고요. 제가 최선을 다한 프로그램이라 그걸 부정하는 순간 밑바탕이 될 콘텐츠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정신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화법을 찾아가야 하는 과정이 ‘놀면 뭐하니?’였습니까.”

김태호 PD는 8일 MBC TV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탐나는 TV’에 출연해 화제의 예능 ‘놀면 뭐하니?’ 제작 뒷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앞으로의 프로젝트에 대해 귀뜸했다.

작년 7월 첫 방송된 ‘놀면 뭐하니?’는 지난 반년간 릴레이 카메라, 조의 아파트, 대한민국라이브, 유프래쉬, 뽕포유, 인생라면까지 6개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초반엔 ‘김태호 PD 작품치곤 기대만 못하다’는 감상도 있었지만, 유재석이 드림을 연주하는 유프래쉬부터 술술 반응이 오더니 뽕포유는 지난해 하반기 대세 ‘유산슬 신드롬’을 만들어냈다.

김 PD는 “제일 먼저 선정된 건 ‘확장’이라는 코드였다. 이 코드를 갖고 유튜브 사용자들과 함께 테스트해보자며 던진 릴레이 카메라였다”며 “초반 6회까지 내용은 유튜브에 올리려고 했던 내용이 다. 유튜브는 댓글이 좋게 달리는데 이걸 보고 달력 방송일이 잡히면서 (확장에 관한 합의가 될 뻔) 실험이 6회까지 나왔던

것”이라고 뒷이야기를 풀었다. 그는 ‘무한도전’을 ‘도전할 상대, 바꿔야 할 상대’라고 비유하면서 “당분간은 그런(‘무한도전’ 같은) 콘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한다. 지금은 1인 도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유재석이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이 나올 것이다. 1인 콘텐츠에서 인적인 확장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유재석과 진행하는 아이템 2~3가지가 있다. 유재석이 EBS 가서 펍수를 만났는데 펍수의 골드버튼(채널 구독자 100만명을 달성하면 유튜브에서 주는 선물)을 보고 부러워하는 모습을 봤다. ‘원하면 만들어줄게’란 마음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기획해볼까 한다”고 설명했다.

선보이지 못한 프로젝트도 있다. 김 PD는 “대한민국라이브의 교통수단 다음 주제로 의자도 있었다. 시골 버스 정류장, 주민센터 의자, 은행 대출창구 의자 등 의자를 활용하는 분들의 삶 각각의 이야기가 다를 것 같아서 주목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아이디어가 시작되는 근원에 대해 김 PD는 “14년간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가 있다. 이분에게 즐길 수 있을 정도의 고통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한다”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놀면 뭐하니?’는 지난해 트로트 열풍과 유산슬 세계관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유재석은 MBC 연예대상에서 유산슬 캐릭터로 신인상을 받기까지 했다. SBS TV ‘영재발굴단’과 KBS 2TV ‘아침마당’, EBS 1TV ‘자이언트 펭TV’, 코미디TV ‘맛있는 녀석들’과 협업으로 방송사 간 벽을 허물어 주목받았다.

김 PD는 “유재석이 ‘무한도전’ 시절 냈던 ‘트로트 대축제’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원래는 유재석 이름 없이 노래 먼저



김태호 PD



트로트 신인 가수 유산슬 (본명 유재석)

발표하고 얼마나 있어야 반응이 올지 실험하는 거였다. 그런데 당장 이슈를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라 너무 먼 얘기였다. 유재석이 못 썼을 무대를 새로운 캐릭터를 활용해 접근해보고자 했다. 유재석에게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주고 싶었고 또 그게 필요했던 상황에서 부캐릭터의 가능성이 맞아떨어졌다”라며 뽕포유 프로젝트의 탄생 비화를 들려줬다.

특히 보수적인 지상파 방송사에 몸담고 있으면서 경쟁사와 문치는 파격적인 시도를 한 데 대해 김 PD는 “돌만 알고 진행했다. 내부 보고 없이 저질렀던 측면이 크다”면서 “방송이 디지털에 위촉될 격정으로 고민하다가 재미있는 콘텐츠라면 어느 플랫폼이든 보지 않을까, 우리가 씨실이 돼서 낱실을 여어내면 플랫폼보

다 콘텐츠가 위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레거시 미디어의 예능 PD로서 ‘주목도 높은 큰 화면과 손바닥 안 모바일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던 그는 대안으로 ‘마블 같은 세계관’을 생각하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레거시 플랫폼에 맞는 걸 제고하고 있지만, 여기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좀 더 충성도 높은 시청자를 위해 유튜브나 포털용, 아니면 거대 OTT를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세계관을 공유하며 가다 보면 마블이 해온 것처럼, 시청자들이 움직여서 찾아보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게 저와 후배 PD들이 고민하는 것들입니다.” /연말뉴스

## 브라운아이드소울 정엽, 다음 달 결혼한다

신부는 7살 연하 비연예인

보컬그룹 브라운아이드소울 정엽(사잔·본명 안정엽·43)이 다음 달 결혼한다.

소속사 룡플레이뮤직은 정엽이 교회에서 만난 7살 연하 비연예인과 다음 달 결혼식을 올린다고 10일 밝혔다.

소속사는 “가족분들만 모시고 작은 예배의 시간을 가지면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면서 “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결혼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조용히 치르게 됐다”고 말했다.

정엽은 전날 팬카페에 영상을 올려 팬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리면서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2003년 4인조 보컬 그룹 브라운아이드소울로 데뷔해 팀에서 ‘정말 사랑했을까’, ‘마이 스토리’, ‘비켜줄게’, ‘마이 에브리싱’ (My Everything) 등 수많은 곡을 히트시켰다.

특유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부른 솔로곡 ‘나심 베테라’ (Nothing Better), ‘유아 마이 레이디’ (You Are My Lady), ‘잘 지내’ 등이 인기를 얻으면서 솔로로서 두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 MBC 월화극 ‘저녁 같이 드실래요?’ 송승헌 캐스팅

정신과 전문의 김해경 역로맨스극 5월에 첫 방송

월화드라마를 재개하는 MBC TV가 오는 5월 새 월화극으로 ‘저녁 같이 드실래요?’를 편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이 드라마는 사랑의 감정이 없어져 버린 두 남녀가 저녁 식사를 매개로 감정을 회복하며 사랑을 찾아가는 로맨스극이다.

남자 주인공 ‘김해경’ 역에는 배우 송승헌이 캐스팅됐다. 극 중 정신과 전문의이자 음식 심리학자로 분한다.

이전 드라마로 송승헌은 2013년 ‘남자가 사랑할 때’ 이후 7년 만에 MBC 드라마에 출연하게 됐다.

드라마 제작은 빅토리콘텐츠가, 연출과 대본 집필은 각각 고재원 PD와 김주작가가 맡는다. 지난해 SBS TV ‘열혈사제’로 인기몰이를 한 박재범 작가는 크리



송승헌

에이터로 참여한다. ‘저녁 같이 드실래요?’는 ‘365:운명을 거스르는 1년’ 후속으로 오는 5월 첫 방송된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사랑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더 게임:0시를 향하여(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고립낙원 스페셜 55 생생정보 스페셜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40 옥탑방의 문제아들(재)	00 12 MBC 뉴스 20 2부 마가렛 50 뽕포유 모두야 놀자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뽕포유 모두야 놀자 스페셜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뉴스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킴즈 동물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TV는 사랑을 싣고(재)			00 뉴스브리핑
3	00 가요무대(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착성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나쁜사랑(재)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00 두 번은 없다(재)	00 고창견문록 스페셜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날아라 숲들이 뉴 비기닝(재)	00 5 MBC 뉴스 25 경성판타지 스페셜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불타는 청춘 외전 외블러(재)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50 닥터 365 55 환상의 타이밍 다시보기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전라도 매력청	50 유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벨24 55 날아라 숲들이 뉴 비기닝	5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50 편애중계	40 낭만닥터 김사부 2
10	00 역사저널 그날 55 더 라이브	00 고립낙원		
11	35 UHD 숨터 40 바다 건너 사랑	00 스탠드 업!	10 PD수첩	00 불타는 청춘 외전 외블러
12	30 KBS 뉴스 40 KBS 결탁 다큐멘터리(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영상앨범 산재	05 끼리끼리 스페셜	20 나이트 라인 50 네모세모(재)

### EBS1

07:00 로보카 폴리	12:00 EBS 정오뉴스	17:30 애코와 친구들(재)
07: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2:10 건축탐구 - 집	18:00 생방송 특!특! 보니 하니
07:30 뽕포유 뽕포유	13:00 EBS 다큐프라임	19:00 스파이더맨
07:45 페파 피그	13:55 미래교육 플러스	19:30 생방송 판다다
08:00 땡땡 땡치원	14:45 물랑	20:00 머털도사
08:30 애코와 친구들	14:55 용감한 소방차 레이(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10 로보카 폴리(재)	<마그레브의 골목길 북아프리카 -낯선 행성으로의 초대>
09:00 엄마 까투리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21:30 한국기행
09:30 원더볼스	15:55 엄마 까투리(재)	<겨울, 내 곁에 2부>
09:40 야옹명명 귀여워2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행복이 뭐냐고 묻는다면 >
10:00 지식의 기쁨	16:25 페파 피그(재)	21:50 EBS 다큐프라임
10:30 한국기행	16:40 땡땡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22:45 건축탐구 - 집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3:35 미래교육 플러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1일(음 1월 18일 甲申)

<p>36년생 간절히 소원이 이루어 질수도 있는 길한 시기이다. 48년생 중간 점검이 절실히 요청 되느니라. 60년생 경사스런 일로 인해서 축제 분위기에 빠져 있는 정황이다. 72년생 서막에 이르자마자 즉시 가닥이 잡히리라. 84년생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판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96년생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행운의 숫자 : 12, 64</p>	<p>42년생 승환과 있다면 승기능을 하리라. 54년생 경향이 달라질 것이다. 66년생 시기를 놓친다면 헛수고에 지나지 않게 된다. 78년생 당래 문제의 실마리가 되어 줄 수 있느니라. 90년생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따라 줘야만 한다. 02년생 안정세로 접어들겠다. 행운의 숫자 : 21, 86</p>
<p>37년생 초심대로라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49년생 순조로움을 더 하고 있으니 가속도를 낼 때다. 61년생 핵심에서 벗어나면 순해로 이어진다. 73년생 대중소이하다고 할 수 있으니 어렵잖아도 하등의 지장이 없다. 85년생 한 번 뺨은 맞은 주위 담을 수 없는 법이니 삼사일일 하자. 97년생 짧은 시간을 할애해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45, 95</p>	<p>31년생 애로 상황이 생길 수다. 43년생 애초에 마음껏던 계획대로라면 대박이 날 것이다. 55년생 양호한 판시세로 전환될 기운이 높다. 67년생 어떤 역할에 따라서 구도가 달라질 것이다. 79년생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가 판도를 좌우하는 요체가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니라. 91년생 자연스러운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16, 85</p>
<p>38년생 현재 상태대로 진행하라. 50년생 가뭄이 넘겨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 62년생 공명정대한 자세로 당당하게 임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74년생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86년생 상대의 충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98년생 인내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5, 51</p>	<p>32년생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어지럽겠다. 44년생 여유를 가지고 대처해야 할 일이 없을 것이다. 56년생 여유를 갖고 자신의 뒤를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 68년생 열린 마음이 많은 기회를 담보하리라. 80년생 예의 주시한다면 의외로 얻는 바가 대단히 많을 것이다. 92년생 예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 행운의 숫자 : 08, 52</p>
<p>39년생 상대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활로를 개척하는 계기가 되리라. 51년생 상대의 태도에 대한 의중을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63년생 상대적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75년생 새로운 인연이 보인다. 87년생 성부가 경각에 달려 있으니 지금은 오로지 집중해야 할 때이다. 99년생 성취의 보람을 만끽하리라. 행운의 숫자 : 00, 77</p>	<p>33년생 과거에 몰랐던 원리를 깨닫는 기쁨이 있다. 45년생 오늘 반드시 행해야 할 바가 있을 것이니 놓치지 않도록 하라. 57년생 외형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69년생 결모습까지 신경 썼을 때 제 값을 할 것이다. 81년생 요령 있게 대처해야만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 93년생 우연히 길사와 연결되나 오래 가지는 않는다. 행운의 숫자 : 09, 62</p>
<p>40년생 세밀하게 살펴보면 중차대함을 찾게 될 것이로다. 52년생 셈을 잘 해야 손해 보지 않느니라. 64년생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찬스를 놓치게 된다. 76년생 소신과 자신감은 좀 더 나은 결과로 이끈다. 88년생 소홀하다가 는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 00년생 소홀함이 없어야 풀리리라. 행운의 숫자 : 42, 98</p>	<p>34년생 웃음꽃이 만발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리라. 46년생 원리를 잘 응용할 줄 아는 삶의 지혜가 요망된다. 58년생 유리한 국면의 기초를 다지게 되는 판세이다. 70년생 우연한 사고방식이 순조로움을 이룰 것이다. 82년생 유익한 이와의 만남이 있을 수다. 94년생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회를 도모하는 것이 백 내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0, 57</p>
<p>41년생 자신이 술선수범 한다면 모두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 53년생 순조로움을 더 할 것이다. 65년생 숨어있는 내면의 본질을 파악해야 해결 된다. 77년생 쉽게 기회가 오지는 않을 것이니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겠다. 89년생 쉽게 보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01년생 스트레스 해소를 잘 해 나가라. 행운의 숫자 : 27, 93</p>	<p>35년생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47년생 생의 의미와 가치를 따르는 것이 현명하다. 59년생 당연히 해왔던 바에 변수가 생긴다. 71년생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는 것이 유익하다. 83년생 빠른 수단을 취하는 것이 국면을 타게 하는데 일조 한다. 95년생 가까운 곳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으니 눈을 크게 뜨고 보라. 행운의 숫자 : 46, 97</p>